

#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노병호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어교원학과

## Error Analysis of Chinese Learners of the Korean Language: Focus on Analysis of Vocabulary

Byung-ho Noh

Division of Korean teachers, Dong 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을 실시하여 오류의 원인을 살펴 보고 이를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생산해 내는 오류에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 ‘중국과 한국의 문화융합에 대하여’, ‘친구’ 등의 주제로 작문한 것을 바탕으로 모든 문장을 입력하고 이들 문장 중에서 어휘 오류를 추출하여 수정한 후, 본 연구자가 설정한 오류 유형의 범주에 의하여 재분류하였으며 분류한 오류의 빈도수를 작성하였다. 연구의 결과, 대치 오류 > 철자 오류 > 오형태 > 누락 오류 > 첨가 오류 의 순으로 오류의 유형이 나타났다. 오류 방지를 위한 교육 방안으로 문법적인 요소나 어휘의 형태적인 면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제약이 되는 점을 같이 제시해줘야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 **Key Words** : 한국 문화, 한국어, 오류, 교육 방안, 융합, 학회

**Abstract** The aim of study is to present a better teaching strategy to reduce writing errors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after finding out what reasons of errors were after analyzing of their writing errors in Korean language.

Analyzed contents were writhing in Korean language of ‘how I think Korean’, ‘about Chinese and Korean culture’, ‘friends’ and analyzed what errors were occurred. The vocabulary errors frequencies were counted by the criteria which was set by a researcher.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frequency of substitute error was the most and were followed by spelling error, wrong type error, omission error and adding error. It is suggested when we teach Korean Language to Chinese learners and develop text for them, the vocabularies should be presented with examples of how to be used in context instead of presenting only vocabulary on the text. It would be a better way to reduce writing errors of Chinese learners of Korean language.

• **Key Words** : Korean culture, Korean language, error, Educational measures, Convergence; Society

## 1. 서론

제 34회 한국어 능력 시험(TOPIK)<sup>1)</sup>이 14년 4월 19일과 20일(국내·외)양일에 걸쳐 65개국에서 실시되었다<sup>2)</sup>. 한국어능력시험은 올해로 18년째 실시해 오고 있으며 해마다 응시자 수가 늘어나 34회 시험에 총 응시자가 7만 2079명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중국인 응시자 수는 매년 50%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의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교수자와 교재가 충분하다고는 볼 수 없는 상태이다.

우선 중국 내의 한국어 교수자를 살펴보겠다.<sup>3)</sup> 중국 내의 한국어 교수자는 중국의 중심 도시인 북경이나 상해를 제외하면 한국어 교육이나 국어학<sup>4)</sup>을 전공하거나 접해보지도 못한 조선족 출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들 중에는 연변대학교 등에서 조선어를 전공하거나 대외 한어<sup>5)</sup>를 전공한 사람이 소수 존재하지만, 이들조차도 한국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려우며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다음의 가)는 한국어 학과에서 한국어를 교수하고 있는 교수자의 발화 내용이다.

[가] 1) 한국 교재는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요.  
(→ 알게 해줘요)

- 1) 한국어 능력 시험(TOPIK: Test Of Proficiency In Korean)은 한국 교육 과정 평가원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은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중반까지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공인된 평가 방법이 없었다. 이에 1995~ 1997의 2년 동안 여러 명의 교수진이 공동으로 연구하여 1997년에 비로소 한국어능력시험 제 1회가 실시되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여 매년 1회, 현재까지 총 35회의 시험이 실시되었다. 한국어 능력시험의 평가 영역은 크게 표현 영역과 이해 영역으로 나뉘며 표현 영역은 어휘·문법, 쓰기로 이해 영역은 듣기, 읽기로 구성되어 있다.
- 2) 한국교육평가원 참고 <http://www.topik.or.kr/>
- 3) 한국에서 파견된 한국인 한국어 교수자가 중국 각지에 파견되어 있으며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 4) 여기서의 국어학은 한국에서의 국어학을 말한다.
- 5) '대외한어'는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중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중국어를 교수할 수 있는 지식을 배우는 학문으로 한국어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 2) 일요일에는 기숙사에서 빨래를 씻어요.  
(→ 빨아요)
- 3) A : 어제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해요.  
B : 일 없어요. (→ 괜찮아요)

교재 부분도 사정은 비슷하다. 즉, 초급을 비롯한 중급,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교재는 물론 주교재에 따른 부교재, 언어 기능별<sup>6)</sup> 교재 역시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다. 치치하얼 대학교<sup>7)</sup> 한국어 학과의 경우를 예로 들면, 1학년 학생이 수강해야 하는 과목은 '기초 조선어<sup>8)</sup>', '어음<sup>9)</sup>', '듣기', '회화'등이 필수 과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선택 과목에는 '조선 신문 읽기', '조선 영화 보기', '현대문학사', '고전문학론', '현대시론'등이 있다. 이 중에서 교재가 구비되어 있는 과목은 '기초 조선어'하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어휘 가운데 현재 한국어 상황에서 사용되지 않는 어휘나 부자연스러운 표현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발췌하여 이하에 제시한다. 이하의 예문은 '기초 조선어'의 주요 교재인 「한국어1」<sup>10)</sup>에서 발췌하였다.

- [나] 1) 형식 씨 거리에 가지 않겠습니까?  
2) 오늘 날씨는 어제보다 꼭 따뜻합니다.  
3) 저는 칼을 갈려 합니다.  
4) 머리도 쉼 겸 사냥을 가 볼까 해요.  
5)저의 생김생김에 어울리고 보기도 좋아요.

- 6) 본고에서의 기능별 교재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별 교재를 말한다.
- 7) 필자는 본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서 2년 이상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교재 선정으로 고심하고 있다.
- 8) 대부분의 중국 내에서는 '한국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조선어'라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 9) '어음'은 '발음 교육'을 말한다.
- 10) 이 교재는 「한국어 1」, 「한국어 2」, 「한국어 3」, 「한국어 4」의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북경대학 조선문화 연구소가 파내고 서울대학교 국어 교육 연구소에서 감수한 교재로 치치하얼 대학교에 한국어 학과가 개설된 이래 이 교재를 정독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2000, 8. 민족출판사). 한국어 1」, 「한국어 2」는 1학년을 대상으로 「한국어 3」, 「한국어 4」는 2학년을 대상으로 '조선어 정독'이란 과목 명으로 교수되고 있다. 「한국어 1」를 살펴보면, 1과 - 10과 까지 발음에 대하여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으며 본문은 11과 - 25로 구성되어 있다. 각 단원의 구성은 '하나의 대화문 - 읽기 - 새 단어 - 발음 - 문법 및 관용 표현 - 연습 - 번역'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어휘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교수자 또는 교재로 학습한 한국어 학습자가 한국어를 사용할 경우 이하의 예와 같이 한국어 상황에 적절하지 못한 한국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의 예는 본고의 분석 대상인 한국어 학습자의 작문에서 발췌한 것이다.

- [다] 1) 예전에 저는 문장(→책)을 한 권 읽었어요.  
 2) 한국의 사람들은 예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요시 합니다)  
 3) 제일 중요한 것은 상후(→서로) 신임(→신뢰) 해야 합니다.  
 4) 이민족은 자기의 원기(→힘)이 없어요.  
 5) 김치가 매우지만(→맵지만)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물론 위와 같은 중국어 모어 화자의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가 항상 교육 자료와 교수자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요인이나, 3), 4)와 같이 모국어의 간섭이나 발음으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5)와 같이 규칙의 불완전한 활용으로 인하여 형태적인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오류 분석을 실시하여 오류의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어휘에 나타나는 오류의 유형과 빈도를 조사하여 원인 분석 등을 시도한 후, 그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이 생산해 내는 오류에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 1.1 연구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중국 치치하얼 대학교 한국어 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한국어 쓰기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분석한 것으로 학습자들이 작문에서 산출한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학습자들은 2013년 9월에 치치하얼 대학교 한국어 학과에 입학하여 현재까지 한국어를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로서 한국어 학습 기간은 약 1년 반 정도이다. 이들은 지난 학기까지 위에서 제시한 「한국어 1」(2000. 민중 출판사)으로 조선족 교수자에게 수업을 받았으며 그 이외의 회화와 듣기 수업은 한국인 교수자에게 수업을 받았다.

11) 중국어의 '호상(互相)은 한국어의 '상호', '서로'에 해당된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자료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 「중국과 한국의 문화에 대하여」, 「친구」 등의 주제를 수업 시간 중에 제시하여 작문을 완성하도록 한 것으로 수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수집하였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의 모든 문장을 입력하고 이들 문장 중에서 어휘 오류를 추출하여 수정한 후, 본 연구자가 설정한 오류 유형의 범주에 의하여 재분류하였으며 분류한 오류의 빈도수를 작성하였다.

본고에서는 어휘 오류의 범위를 이하의 라)에 제시한 것과 같은 어휘 오류는 물론 어미류 활용, 시제, 형태의 오류나 철자 오류까지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라 2)에서 나타난 '겨울이 좋아해요(→겨울을 좋아해요)'에서와 같이 '-좋아하다'에 사용되는 목적격 조사 '-을/를'의 오류나 20)의 'N의 N'와 같은 전성 명사의 오류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유형 또는 같은 유형의 오류는 각각 카운트했다. 즉 라 1)의 문장을 예로 들면, 어휘 오류가 두 번, 어미류 활용 오류가 한 번 나타난 것으로 집계했다.

- [라] 1) 지주도(→ 제주도), 서울, 부산 등 잠(→참) 어  
 여쁘군요.(→예뻐요)  
 2) 나는 시우한(→시원한) 겨울이 좋아해요.  
 3) 한국에서는(→의) 경제(→경제)는 아주 발달합  
 니다.(→발달했습니다)

## 2. 어휘 오류

### 2.1 오류의 개념과 분류 기준

Coder(1981)에 의하면 오류(error)란 학습자가 체계적으로 범하는 잘못으로서 학습자의 언어지식이 구조화되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화자(외국어 학습자) 스스로 수정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sup>12)</sup> 즉, 오류는 실수(mistake)와는 구별되며, 실수는 오류와는 달리 언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회적인 잘못으로 화자 스스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결국 학습자의 언어 수행 과정을 시간을 두어 관찰하지 않는 이상 오류와 실수를 구별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의 [마]에 제시하는 예를 보면, 모두 같은 형태의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1)과 4)에서는 규칙에 맞게 조사를

12) 이정희(2002) 참조.

사용하고 있으나 2), 3), 5) 에서는 일탈된 형태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어 학습자들이 지속적으로 규칙에 맞거나 일탈된 형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2), 3), 5) 가 오류인지 아니면 실수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 [마] 1) 한국의 음식이 너무 매워요.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아요.  
 2) 아침에 교통가 복잡해요.  
 3) 한국에서 백화점을 많이 있어요.  
 4) 여자들이 참 예뻐요. 그들은 화장품을 아주 좋아해요.  
 5) 한국 여자는 화장품을 많이 있어요. 그들은 가수처럼 예뻐요.<sup>13)</sup>

그러나 같은 학습 단계에 있는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이하의 바)에 제시한 것과 같은 오류를 일으키는 빈도가 높을 경우, 이는 실수라고 하기보다는 오류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교육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바] 1) 한국 사람은 무술을 아주 좋습니다.  
 (→ 좋아합니다)  
 2) 강원도하고 제주도하고 한강은 저가 너무 좋아요.(→ 좋아합니다)  
 3) 한국의 문화, 예절, 음식, 경치 다 유명이에요.(→ 유명합니다)  
 4) 한국의 수도 서울이 북경과 같이에요.  
 (→ 같아요)

일반적으로 언어 교육 현장에서 오류를 분석하는 것은 오류 분석의 결과를 바로 교육 현장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학습자의 오류 분석을 통하여 학습자의 현재의 학습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학습자가 어려워하는 점을 찾아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줄 수 있다는 것이 오류 분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오류를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규범과 규칙에서 일탈된 형태를 공통적·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겠다.

## 2.2 오류의 유형 분류 및 원인

오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집한 연구 자료로부터 오류의 유형을 분류하여야 한다<sup>14)</sup>. Dulay, Burt&krashen(1982)에서는 오류 유형의 분류 기준으로 언어학적 범주 유형(Linguistic Category Classification)과 표면 전략적 유형(Surface Strategy Taxonomy)을 소개하고 있다. 전자는 먼저 음운, 형태소, 문법 차원의 오류로 나눈 후 이를 다시 동사, 명사, 전치사, 관사 등의 오류로 세분하여 분류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학습자가 필수적인 요소를 누락 또는 첨가, 대치시켜서 표면 구조가 바뀌는 양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다. 이 외에도 Coder(1974, 1981)<sup>15)</sup>은 오류 발생의 원인에 따라 오류 유형을 분류하고 있는데, 언어간 전이(interlingual transfer), 언어내적 전이(intralingual transfer), 학습 환경 요소로 인한 오류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또한 언어간 전이는 특히 초급 단계의 학습자에게 많이 나타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 학습자의 오류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어 오류 판정과 분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국어 오류 분류 방법을 원인에 따른 분류와 결과 판정에 따른 분류로 나누고 있다. 전자는 다시 모국어 영향에 의한 오류, 목표어 영향에 의한 오류, 교육 과정에 의한 오류로 나누고, 후자는 범주별 오류, 현상에 따른 오류, 정도에 따른 오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고에서의 어휘 오류는 대치, 누락, 첨가, 철자, 오형태 등으로 유형을 분류하여 분석하겠다. 대치는 서로 다르거나 유사한 의미를 가진 어휘를 교체하거나 잘못된 형태를 사용한 것을 의미하며, 누락은 일정한 어휘나 형태를 사용하지 못하고 누락시킨 것, 그리고 첨가는 불필요한 어휘나 형태를 추가하여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철자는 한국어 맞춤법에 일탈된 형태를 사용한 것을 의미하고 오형태는 종결어미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시제 등과 같은 문법적인 요소가 잘못된 형태로 사용한 것을 의미한다. 다음의 사)는 각각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14) Coder(1981)에서 오류 분석 절차를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자료를 선정하고, 오류를 식별한 후에 오류의 분류 작업을 거쳐서 오류에 대한 기술과 평가 등의 5단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고 있다.

13) 이 자료는 본고의 분석 자료의 일부이며 이후에 사용된 자료 역시 본고 분석 자료의 일부이다.

15) 이정희 (2002), 석주연·안경화(2003) 참조 Richard (1971), Coder(1974, 1981)

- [사] 1) 한국 사람들은 예절을 많이 사용합니다.  
 (→중시합니다 : 대치)  
 2)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누락) 모라요  
 (→몰라요 : 철자)  
 3) 그렇지만 두 \*개(→개: 첨가) 나라 서로 문화가 너무 달라요(→달라요 : 철자).  
 4)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인구가 조금 작지만 매우 발달합니다.  
 (→발달했습니다 : 오형태)  
 5) 김치가 매우지만(→ 맵지만 : 오형태) 많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위와 같은 오류를 일으킨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의 문맥의 전후 요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그리고 학습자의 모국어(중국어)와 학습자들이 1년 동안 사용한 한국어 주교재<sup>16)</sup>도 중요한 고려 대상에 넣었다. 오류는 학습자가 목표어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지 못할 경우에 나타나는 것인데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학습자는 가능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이용한다. 목표어의 어휘 또는 문법적인 요소 등을 모국어와 대조하면서 유사성을 찾아내어 사용하기도 하고 목표어 내에서 학습한 다른 규칙을 적용시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전을 찾거나 문법 규칙들을 과잉 적용 시키거나 또는 일반화시키기도 한다. 그 이외에도 학습자의 오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원인으로 학습자의 학습 환경이나 성별, 외국어 학습 경험의 유무 등과 같은 학습자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겠으나, 본고에서는 한국어 교육 자료, 교수자, 모국어 간섭, 과잉 적용, 불완전한 습득 등으로 설정하였다.

### 3. 어휘 오류 빈도와 분석

#### 3.1 어휘 오류 빈도

우선 위에 제시한 연구 절차에 따라 연구 자료로부터 추출한 오류를 어휘 오류 유형에 따라 재분류하고 각각의 오류 유형별로 출현한 빈도수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의 양은 총 1398문장이며 그 중에서 오류를 포함하는 문장<sup>17)</sup>은 856문장으로 61.2%에 이른다.

총 오류 문장 중 어휘 오류 문장이 279문장(34%), 조사 오류 문장이 337문장(41%), 그리고 보조 용언, 전성어미, 의존명사 등과 같은 오류 문장이 205문장(25%)이 추출되었으며 조사 오류 문장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어휘 오류를 중심으로 분석을 하였으며 조사 오류 문장은 분석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오류 문장 중 아래의 아)에 제시한 것과 같이 전체적으로 의미 해독이 전혀 불가능한 35문장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정희(2002)에서는 한국어의 오류 유형을 크게 원인에 따른 분류와 결과 관정에 따른 분류로 나누고 있다. 결과 관정에 따른 분류를 범주, 현상, 정도에 따른 오류로 재분류한 후, 다시 각각을 세분화하고 있다. 정도에 따른 오류의 하위 범위로 전체적 오류와 부분적 오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전체적 오류는 의사소통 전반을 방해하는 오류이고 부분적인 오류는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부분적인 오류 항목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이정희(2002)는 전체적 오류는 반드시 예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아] 1) 눈물이 영원이 문제가 몰릴 해 습니다.  
 2) 그러나 나는 인정하기 우리 반드시 인생이 해야 한 살아요.  
 3) 고민 때 친구와 말씀해서 날씨가 밝습니다.  
 4) 자기의 글은 집합적인 지혜의 걸작을 입니다.

위의 아)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 오류를 나타내는 예가 종종 있는데, 이는 주로 한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연결어미 사용 등의 용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석주연·안경화(2003)는 전국적 오류와 국소적 오류<sup>18)</sup>의 유형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대상 언어의 구조적 특성이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성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오류 문장들이 전국적 오류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어절을 단위로 오류 문장을 분석하고 있으나(김정숙·남기춘(2002), 김청자, 김정은(2003), 김미옥(2003)), 본고에서는 문장을 단위로 분석하였다. 문장(=발화)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장 안에서의 맥락을 고려한 오류 수정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8) 여기의 전국적 오류(global error), 국소적 오류(local error)는 Burt(1974)가 제안한 개념으로 이정희(2002)의 전체적 오류, 부분적 오류와 맥락을 같이한다.

16) 제1장 참조

17) 지금까지의 오류 분석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한국어인 경우 연결 어미류의 부재나 오사용 같은 경우를 전국적 오류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위의 [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선 교수자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본적인 문장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학습자가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2 어휘 오류 유형별 분석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어휘 오류를 앞서 설정한 어휘 유형, 즉 대치, 누락, 첨가, 철자, 오형태 등으로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에 의하면, 어휘 오류의 유형 중에서 대치 > 철자 > 오형태 > 누락 > 첨가 등의 순서로 나타나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어휘 오류 문장 빈도수는 279개이며, 이에 포함된 오류 빈도수는 413개로 집계되었다. 이는 한 문장에 하나의 오류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 이상의 오류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1>Types and frequency of lexical error

type	replacement	omission	annexing	spelling	allomorph	total
frequency	170	39	5	119	80	413
ratio	41.2	9.4	1.2	28.8	19.4	100.0

#### 3.2.1 대치 오류

어휘 오류를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위의 <Table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치는 학습자가 해당 어휘 대신에 의미가 유사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어휘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한다. 그 예를 본고의 분석 자료 중에서 추출하여 이하와 같이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에서는 오류 부분을 모두 수정하였으나 이하에 제시하는 예문은 해당 부분만을 수정했다.

- [자] 1) 한국의 과학 기술이 정말 선진이에요(→ 발달했어요).  
 2) 국제에는(→세계에서) 유명입니다(→유명합니다).  
 3) 한국 노래를 유명입니다(→유명합니다).  
 4) 손님에가 아주 열정합니다(→친절합니다).

위의 예문들을 보면, '하다'와 '이다' 등의 서술 형태를

불완전하게 습득했거나 서술어 표현을 형태적, 의미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여서 범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이다 동사'는 명사나 명사의 기능을 가진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성 동사이며<sup>19)</sup>, '하다'인 경우는 일부 명사와 결합하여 동사 또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언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어휘 확장도도모기 위하여 「명사+이다」와 「명사+하다」의 규칙 형태로 학습자에게 제시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제약을 설명 없이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이를 확대하여 적용하려고 한다. 즉 위의 예들은, 학습자들이 「명사+이다」와 「명사+하다」의 규칙을 과잉 적용시켰기 때문에 산출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위의 [자]의 '선진'과 '열정'은 중국에서도 한국어와 같은 한자어로 사용되고 있는 말인데, 용법, 품사, 의미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의 [차]의 예문을 보면, 중국어에서의 '선진'과 '열정'은 한국어와는 달리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으며, 의미면에서도 한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카)의 1)과 4)은 중국어 모어 간섭에 의하여 산출된 오류임을 알 수 있다.

- [차] 1) 盧老師的房間很先進.  
 (→ 노선생님 방은 매우 세련되었다)  
 2) 這個工廠在這方面很先進.  
 (→이 공장은 이 방면에서는 매우 앞서있다)  
 3) 他對客人很熱情.  
 (→ 그는 손님에게 매우 친절합니다)  
 4) 老師對我很熱情.  
 (→선생님은 나에게 매우 다정합니다)

중국어 모어 간섭에 의하여 대치 오류를 나타내는 예는 이외에도 이하의 파)와 같은 예가 있다. [카]의 예들은 중국어를 단순히 한국어로 번역하여 사용된 대치 오류의 형태들이다.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중에서 중국어와 의미가 같은 한자어들이 다수 있다는 것을 아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표현을 실현시키고 싶은 욕구에서 모국어 표현을 한국어로 단순 번역하여 사용하는 예가 종종 있다. 이와 같은 모국어 간섭에 의한 대치 오류는 본 연구 자료 분석에서 65회 나타났다.

19) 백봉자(1999) 참조.

- [카] 39) 한국의 경색(→경치)는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40) 매킨(→모든사람)이 거의 차를 있습니다.  
 41) 총괄적으로 말하면(→결론적으로 말하면) 친구는 나의 수호천사입니다.  
 42) 이제 한 친구를 개소(→소개)하십시오.  
 43) 저의 친구는 보충 수업을 한(→해서) 원조했어요(→도와줬어요).

목표어의 어휘 의미 지식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대치 오류도 나타나는데 그 예를 제시하면 이하의 [타]와 같다.

- [타] 1) 저는 친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적은) 사람이 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2) 우리는 신체(→몸)와 마음처럼 떠날 수 없습니다.  
 3) 생활 중에(→속에) 복식의 변화가 아주 많습니다.  
 4) 문장(→ 책) 중에 한국 사람은 세계중 제일 좋은 모두 한국에 있어요.  
 5) 저는 꼭(→아마도) 한국 음식을 잘 먹을 거예요.  
 6) 요컨대 온(→ 모든) 친구들은 좋아합니다.

위의 예들은 비슷한 어휘들의 의미를 구별하지 못하여 범한 오류들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1)를 보면 ‘조금’의 의미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오류라고 볼 수 있다. ‘조금’의 의미를 사전<sup>20)</sup>에서 찾아보면, “정도, 분량 등이 적다”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품사는 부사이다. 1)의 부사로 사용된 ‘조금’은 위의 예에서 나타난 ‘사람’과 같은 명사보다는 이하의 [파]의 예처럼 용언의 바로 앞에 자리하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든다.

- [파] 1) 오늘은 저녁을 조금 먹었습니다.  
 1') \*오늘은 조금 저녁을 먹었습니다.  
 2) 눈이 조금 쌓였어요.  
 2') \*조금 눈이 쌓였어요.

45)의 ‘신체’와 ‘몸’은 유의어 계열 관계를 형성하지만 호응하는 어휘가 이하의 (너)와 같이 서로 다르다. 이 밖에도 본 연구 자료에서 ‘일 학생 → 한 학생’, ‘한 개 사람 → 한 사람’ 등과 같은 오류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한 어휘 교육은 어휘가 유사한 의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호응하는 어휘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용례를 제시하여 학습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실에서 어휘를 제시할 때 단어만을 제시하여 설명하는 것 보다 호응 되는 어휘들도 같이 제시하여 주는 편이 학습 효과가 높을 것이다.

- [하] 1) 신체의 자유/ \*몸의 자유 → 자유의 몸이 되었다./ \*자유 신체가 되었다.  
 2)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건강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3)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 \*담배에 신체 에 나쁘다  
 4) 귀하신 몸/ \*귀하신 신체

[하] 1)의 ‘-중’은 ‘-중’과 ‘-속’의 어휘의 의미 차이를, 2)의 ‘문장’은 ‘책’과의 의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한 경우에 해당된다. 그리고 ‘-중’과 ‘문장’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같은 한자어가 사용되는데, 중국어의 ‘-중’과 ‘문장’의 의미 속에는 각각 ‘-속’과 ‘책’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외국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는 이미 모국어에 대한 언어의 지식 체계가 내재화되어 있으며 외국어 학습 시 모국어의 언어 지식에 의존하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는데, 이러한 심리는 학습 단계가 낮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모국어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학습자의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고 보다 쉽게 목표어를 습득할 수 있지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경우 간섭으로 나타나 위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타] 5)의 ‘꼭’은 ①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②조금도 어김없이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로 화자의 희망이나 의지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위의 예문의 객관적인 의지나 의도를 나타내는 ‘~(으)르 것이다’와는 공기할 수 없다. 위의 하)의 예문들과 같이 공기 제약이 있는 어휘들을 교수할 경우에 교수자는 공기 제약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용례를 주어 학습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고의 자료 분석에서는 위와 같은 대치 오류가 학습자의 모국어, 즉 중국어의 간섭에 의한 것과 규칙의 과잉 적용, 그리고 어휘 학습에 있어서 불완전한 지식 습득이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김미옥(2003)에서도 학습 단계와 학습자의 모국어 지역별(영어권, 일어권, 중국어권, 러시아권)로 어휘 오류에 유의차

20) 연세 한국어 사전 <http://dic.yonsei.ac.kr/> 참조. 이하의 어휘의 의미 풀이는 모두 연세 한국어 사전에 의한다.

가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1급과 2급 단계에 있는 학습자 언어권 중에서 중국어권 학습자의 대치 오류가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는 결국 같은 한자 문화권이라는 것이 부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3.2.2 누락 오류와 첨가 오류

누락 오류는 학습자가 정확하게 형태나 어휘의 의미를 기억하지 못해서 일어나거나 의식적으로 사용을 기피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나고 첨가 오류는 불필요한 문법 형태 및 어휘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누락 오류와 첨가 오류의 발생 빈도수는 높지 않다. 누락 오류의 예를 [거]에 제시한다.

- [거] 1) 한국어 *자신한*(→*자신*) [있는] 2) 나라입니다.
- 2) 한국에서 친구를 만난 후에(→만나면) *허리합니다*(→*허리를굽혀 [인사] 합니다*)
- 3) [내가] 생각하는 한국 국도는 참 *작합니다*(→*작습니다*).
- 4) [내가] 생각하는 한국 사람이 *친하고*(→*우호적이고*) *작합니다*.
- 5) 한국을 아주 [많이] *생각합니다*.
- 6) 내가 한국말을 일년 반 [동안] 에 공부했어요.

위의 [거]는 모두 누락 오류이다. 1)의 경우, ‘자신하다’는 의미상으로 현재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하의 더)의 예와 같이 과거나 완료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ㄴ」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들은 이미 관형사형 어미를 학습한 상태로 자신이 학습한 관형사형 어미를 과잉 적용하여 1)과 같은 오류를 생산한 것 같다. 또한 이는 중국어의 모국어 간섭으로도 볼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自信’은 그 자체로 명사와 동사형으로 사용되며 ‘很自信’과 같이 ‘自信’ 앞에 ‘很’이라는 부사를 사용하면 ‘자신만만’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같은 한자어를 사용하지만 그 용법이나 품사가 다르거나 일부 다른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이점을 학습자에게 숙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21) [ ] 는 누락을 나타낸다.

[너] 1) 합격을 *자신*합니다.

2) 그는 *자신*하는 말투로 말했다. / \**자신*한 말투로 말했다.

어휘 교육에 있어서 단어만을 제시할 경우, 단어의 단편적인 의미는 알고 있지만 용법을 몰라 오류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은데, 위의 예문에서 나타난 ‘자신’이 있다/없다,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와 같이 호응도가 높은 어휘를 하나의 덩어리로 학습자에게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너] 2)과 3)의 ‘생각하다’는 동작주가 필요한 타동사로 구어체와는 달리 문어체에서 동작주가 생략되면 어색한 문장이 되며, 그리고 2)과 3)과 같이 안긴 절인 경우 안긴 절의 주어는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문장 구조는 한국어의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한국어 학습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국어의 안긴 절을 한국어 학습자에게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이하의 [더]와 같이 단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 [더] 1) 예쁜 왕정이 가요. → (관형사형 어미 + 명사)  
 학습 : 형용사의 관형사형 어미  
 ↓  
 어제 본 영화가 재미있었다. → (관형사형 어미 + 명사) 학습: 동사의 관형사형 어미 제시  
 ↓  
 어제 왕정이 본 영화가 재미있었다. → 안긴 절 속에서(관형사형어미+명사)를 이해시킨다.

다음 [러] 1)의 ‘억제면(→억제하면)’은 어휘 누락 오류로 불완전한 지식 습득에 의한 오류이며 ‘하면 [\*]’은 불필요한 요소가 첨가된 형태로 이 또한 불완전한 지식의 습득으로 볼 수 있다. 이하의 [러] 2)의 경우는 “他是个熱心的人”의 번역으로 모국어에 의한 간섭으로 볼 수 있다.

- [러] 1) 너는 진신의 감정을 *억제면* [하면] 하면 [\*] 22)즐겁습니다.
- 2) 그는 열심히 [\*] *사람*입니다.

22) [\*] 는 첨가를 나타낸다.



### 3.2.3 철자 오류

한국어의 특징 중 하나가 입말과 글말에서 오는 차이를 들 수 있는데 한국어 표준 맞춤법에 따른 정확한 표기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예로 한국어에만 존재하는 모음조화, 두음 법칙, 단모음화가 있는데, 모음조화의 모음탈락 현상과 모음축약 현상이 특히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학습의 난점으로 작용하는 일이 종종 있다.

- [머] 1) 친구는 많이 *되*(→도와) 줍니다.  
 2) *테관도*(→테권도)를 아주 좋습니다.  
 3) 내가 생각하는 *발리*(→빨리) *발잔한*(→발전한) 나라입니다.  
 4) *그래서*(→그래서)중국과 한국 친구 나라입니다.  
 5) 어떻게 말해 [야할지] *모라요*(→몰라요).  
 6) 서로 문화가 너무 *다라요*(→달라요).  
 7) *삼쎬*(→삼성)핸드폰이 세계(→세계) 유명합니다.  
 8) 중국 사람 만이(→많이) 이용해서요(→이용했어요).

위의 예문들은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이 입말과 글말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생긴 오류이다. [머] 1)의 경우는 한국어 교수자나 주변에 있는 한국어 모어 화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치치하얼 대학교에 한국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과 본 연구 대상 학습자들의 개인적인 접촉이 사실상 많다. 유학생들의 거의 모든 학생이 전라도 지역의 학생으로 그들의 발음이나 어휘 사용에 영향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그리고 중국의 한국어 교육 현장의 한국어 교수자들 역시 한국어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은 사람이 거의 없는 것이 현 실정이다.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의 발음 교육을 살펴보면, 대부분 초급 과정의 커리큘럼에만 존재하는 것 또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중국어 모어 한국어 학습자들을 관찰해보면 특히 중성에 오는 모음 발음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수자가 주의 깊게 지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면, 한국어 발음의 특징 중 하나인 양순 모음의 특성을 과장하여 제시함으로써 그 차이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머] 3)의 예문과 같은 평음, 경음, 격음 발음을 구별하는 것을 어려워하거나 [머] 5), 6)과 같은 중성에 ‘ㄹ’발음이 올 경우 발음을

회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한 발음 교육의 방안으로 [달/딸/탈]과 같이 최소 음소 대립법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머] 1) *지주도*(→제주도), 서울, *부선*(→부산) 등 잠 여쁘군요.  
 2) *래년*(→내년) 우리는 한국에 가려면 유학 생활을 시작해요.  
 3) *그러지 많*(→그렇지만) 한국 물건 참 싸요.  
 4) *은경*(→안경)을 썼어요.  
 5) *가소*(→가수)가 좀 유명해요.  
 6) 한국 요리가 *요명*(→유명)합니다.  
 7) *바림*(→발음)과 *문번*(→문법)이 너무 어려워요.  
 8) 한국의 사랑 영화를 *간동되어*(→감동되어) 눈물을 흘려요

위의 [머] 1), 5), 6), 8) 등은 모국어의 발음의 간섭으로 인한 오류라고 볼 수 있는데, 위의 예문의 철자 오류 제주도, 가수, 감동 등의 중국어 발음은 각각 [jizoudau], [gashou], [yoming], [gandong] 등으로 발음된다. 3)과 4)의 경우는 학습자의 불완전한 지식 습득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우선 언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한국어와 중국어 발음의 차이점을 정확히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그 차이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서] 1) *텍스*(→택시)를 타요.  
 2) 실내 *스케이크*(→스케이트)판에 스케이트 타아습니다.  
 3) *인트네터*(→인터넷) 친구하고 절친한 남자친구가 있어요.  
 4) *인트네터*(→인터넷) 친구가 모두 모른 사람입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외래어 표기의 오류를 나타낸 것이다. 한국어의 어휘 체계는 어종에 따라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등으로 나누어지며, 외래어 역시 한국어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한국어를 구사하기 위해서는 외래어에 대한 의미 교육, 발음 교육 등도 한국어 교육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국어 교육에서 이 부분에 대한 교

육 방안조차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고에서 분석한 철자 오류의 원인을 보면 한국어 및 춤법 체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학습의 어려움, 즉 불완전한 지식의 습득과 학습자 모국어, 즉 중국어의 발음을 한국어에 적용시킴으로써 나타나는 오류, 그리고 교수자의 부정확한 발음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위의 서)의 예문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학습자들이 ‘히’와 ‘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용하는 것 또한 철자 오류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3.2.4 오형태

본고에서의 오형태 오류는 주로 종결 어미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시제 등에서 나타났다. 그 이외의 연결 어미나 보조 용언(4문장에서 4회 출현)과 같은 항목의 오류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습자들이 오류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연결 어미나 보조 용언의 사용을 기피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문장 생성시 복문이 아닌 단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오형태 오류를 종결 어미나 관형사형 전성어미, 시제 등과 같은 문법적인 요소가 잘못된 형태로 사용된 것을 의미한다. 오형태의 오류 빈도는 80회로 대치 오류와 철자 오류 다음으로 많이 나타났으며, 이하에 제시한 것과 같이 주로 관형사형 어미의 활용 오류, 종결 어미 활용 오류, 시제의 오사용 등에서 나타났다. 본고에서 분석한 오류의 예들을 이하에 제시한다.

- [어] 1)나의 가장 좋아(→좋은)친구 왕정이에요.  
 2) 한국하고 중국은 꼭 같이 발전하셨습니다  
 (→발전할 것입니다).  
 3) 친구는 돕을(→도움이) 필요할 때 주는 사람이다.  
 4) 슬프할 때(→슬플 때)우리 같이 울었습니다.  
 5) 기분이 좋아할 때(→좋을 때) 우리 같이 왔습니다(→웃었습니다).  
 6) 성실은(→성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7)나는 김치를 먹은(→먹는)[것을]좋아해요.  
 8) 한국은 현대화되는(→현대화 된) 나라입니다.

위의 [어]의 1), 4), 6)은 「관형사형 어미 + 명사」의 형태 접속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난 오류이고, 5), 7), 8) 등은 관형사형 어미의 시제 선택에 관한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난 오류이다. 관형사형 어미는 특히 중국어

모어 학습자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오형태 오류에서 가장 높은 빈도로 오류를 나타냈다. 3)은 명사형 어미 즉 ‘돕다’의 전성 명사 ‘도움’의 형태 활용 지식의 부족으로 나타난 오류다. 2)의 예는 한국어의 미래를 나타내는 시제 「-겠-」의 용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해서 발생한 오류이다. 위의 제시한 예문 이외에도 아래의 카)와 같은 오류문을 자주 볼 수 있다.

- [저] 1) \*왕평은 오늘 선생님을 만나겠습니다.  
 2) \*왕예는 이번 말하기 대회에서 일등을 하겠어요.

한국어의 미래 시제는 「-겠-」와 「-을 것-」의 두 가지가 있는데 의미적인 차이 구별이 어렵다는 점에서 학습자들이 자주 오류를 일으킨다. 「-겠-」과 「-을 것-」은 미래와 추측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서로 유사한 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주어가 1인칭일 경우에는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고 2인칭이면서 의문문일 경우에는 상대방의 의도를 묻는 표현이 된다. 3인칭일 경우, 이들은 추측을 나타내는데, 「-겠-」은 주관적인 판단에 근거한 추측인데 비해 「-을 것-」은 객관적이고 확실한 상황을 근거로 하는 추측을 표현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을 언어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에게 이해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

이와 같은 항목에 대한 교육 방안으로는 의미의 차이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보다는 먼저 형태적인 면을 시각적인 방법으로 제시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형태적인 면을 습득한 후, 문법 요소의 제약(인칭 등과 같은 제약)을 용례를 통해 제시하여 학습자 스스로 그 의미를 인지하여 내재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다.

- [처] 1) 제주도, 서울, 부산 등 잠 여쁘군요  
 (→예쁘군요).  
 2) 한국 복식도 여쁘니다(→예쁩니다).  
 3) 제친구는 다른 사람에게 도와요(→도와주세요).  
 4) 진신의 감정을 억제면 하면 즐겁합니다  
 (→즐겁습니다).

위의 [처]의 예들은 모두 형태 활용과 용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범한 오류들이다. 오형태의 오류는 모두 학습자의 불완전한 지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형태와 용법에 있어서의 제약에 대한 습득이 완전

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오형태 오류에서는 위에서 논의한 대치 오류, 누락이나 첨가 오류, 철자 오류 등에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던 모국어 간섭이나 과잉 적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 4. 결론

이상에서 중국어 모어 화자 한국어 학습자의 쓰기에 나타난 어휘 오류를 유형별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설정한 어휘 오류의 유형은 대치, 누락, 첨가, 철자, 오형태 등 다섯 가지 범주이며, 그 원인으로 학습자의 교육 자료, 교수자, 모국어 간섭, 과잉 적용, 불완전한 지식 습득 등을 주요 원인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치 오류 > 철자 오류 > 오형태 > 누락 오류 > 첨가 오류 의 순으로 오류의 유형이 나타났다. 오형태를 제외한 오류, 즉 대치, 누락, 첨가, 철자 오류인 경우 모국어 간섭과 불완전한 지식 습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대치 오류와 철자 오류에서는 모국어 간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두 언어권에서 현재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가 품사, 의미, 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형태의 오류는 불완전한 지식 습득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주로 어미의 활용 형태 습득이 불완전하거나 한국어의 종결어미의 기능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범하는 오류가 대부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료가 어휘 오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검증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교육 자료에 새로운 단어를<sup>23)</sup> 제시할 때, 단어의 용법이라든가 용례의 제시가 전혀 없이 중국어 번역과 함께 제시되고 있으며 학습자들이 현재에도 그 교재를 사전 대응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어휘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리고 제1장에서도 밝혔듯이, 교육 자료에 제시된 어휘 중에는 현재 한국어 환경에서 사용 하지 않거나 용법이 다른 어휘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학습자가 어휘 오류를 범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절

차를 밝히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교수자가 오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경우는 주로 발음으로 인한 철자 오류에서 나타났다.

끝으로 본고에서는 어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는데, 특히 학습자의 모국어로 인하여 범하는 오류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어휘 오류에서 모국어 간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어휘 대치 오류, 철자, 누락 등 여러 방면에 걸쳐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어와 모국어의 문장 구조와 품사, 용법<sup>24)</sup> 등이 다르다는 것을 학습자에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논의했다. 그리고 언어 교육 현장에서 어휘를 교육을 할 때, 단어 차원이 아니라 하나의 호응도가 높은 어휘끼리는 하나의 덩어리(예: 허리를 굽혀 인사하다/신체의 자유/자유의 몸이 되었다)로 어휘를 제시하고, 문법적인 요소나 어휘의 형태적인 면을 제시할 경우에는 그 부분의 제약이 되는 점을 같이 제시해줘야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오류의 사례에 대한 연구 목적은 학습자의 오류의 원인을 알아내어 그 오류의 원인을 없애는 데 있다. 또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서는 오류의 원인 규명에 대한 철저한 분석 과정을 거쳐 언어 교육 현장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교수를 할 수 있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자의 오류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류 분석을 시도해 보았으나 미흡한 점이 많았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향후 학습자들의 언어 발달 과정을 살펴보기 위하여 좀 더 많은 자료를 통시적으로 수집하여 오류 분석을 실시하여 보고자 한다.

23) 이 교재의 경우 한 단원 당 제시되어 있는 새 단어가 약 200개에 가깝다.

24) 본고에서는 부사의 위치와 두 언어간의 어휘의 품사, 용법 등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오류를 범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 REFERENCES

- [1] Gi-Sim Nam, "Korean language education methods and actual for foreigner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ess, 1999.
- [2] Jung-Hee Lee, "A Reseacch Study on Language production Errors of Korean Learners" Ph.D.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2002.
- [3] Joo-Yeon Suk, Kyung-Hwa Ahn, "Some Problems of the Error Analysis of Learner Korean", Jour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14, No. 3, pp. 189-215, 2002.
- [4] Chung-Sook Kim, Ki-Chun Nam, "An analysis of Error in Using Korean Particles by Native Speakers of English",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13, No. 1, pp. 27-45, 2002.
- [5] Jeong-Eun Kim, "Inter language and error analysis in a Korean education", Jour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14, No. 1, pp. 29-50, 2003.
- [6] Mi-Ok Kim, "A statistical analysis of lexical errors of Korean language learners", Journal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14, No. 1, pp. 27-52, 2003.
- [7] Eun-Young Na, "A study on the grammatical errors of Chinese Learning Korean Language",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72, pp. 27-45, 2006.
- [8] Hyoung-Sun Yoo, "A Study on a Classification Error pattern about Korean Language", Korean Linguistics, Vol. 41, pp. 357-380, 2008.
- [9] Kyong-hwon Kim, "Consideration of the pattern of Korean errors for foreign Learners -Centered on errors shown in the sentences of Chinese college students", Korean language education, Vol. 80, pp. 5-26, 2008.
- [10] min-hee shim, "Error analysis on the liaison of Chinese learners based on optimality theory",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Vol. 115, pp. 55-77, 2012
- [11] Jing-Xi Zhang, "A study on L1 transfer error analysis of Korean writing for Chinese learners", Ph.D. dissertation, Sonsei University, 2012.
- [12] Bo-Kyung Kim, "An Error Analysis of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Ph.D. dissertation, Sangmyung University, 2012.
- [13] Ji-Yeong Kim, "A Study on the Aspects of Errors in Chinese University Student in Korea -Focused on conversation and free writing", The Society of Poetics and Linguistics Vol. 26, No. 1, pp. 7-29, 2014.
- [14] Sang-Mee Han, "An Analysis of Errors on the Usage of Particles in the Discussions of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An Analysis of Errors on the Usage of Particles in the Discussions of Advanced Korean Language Learners, Vol. 57, pp. 223-255, 2014.
- [15] Eun-hee Lee, Hee-Won Lee, "A Study of Korean Language Textbook for Skill-focused Writing of Beginner Level" Studies in Linguistics, Vol. 34, pp. 227-242, 2015.

## 저자소개

노 병 호(Byung-Ho Noh)

[정회원]



- 2005년 8월 :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 (교육학석사)
- 2008년 2월 :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국어교육학과 (교육학박사 과정수료)
- 2005년 3월 ~ 2014년 2월 :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어교원학과 초빙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한국어교원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한국어교육, 한국어